

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전체 조합원 중 2만9천137명 투표 과반 찬성 실패

추석 연휴 지나고 재협상... 최종 타결은 쉽지 않을듯

기아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추석 연휴 이후에 재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사례에서 보듯 최종 타결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기아차 광주공장과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이 우려된다.

기아차 노조는 11일 전체 조합원 3

만120명 가운데 2만9천137명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임금안이 44.4%, 단협안은 41.6%에 불과했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유는 지난 4일 현대차 노조가 부결시킨 안과 동일한 협상안을 기아차 현 집행부가 받아들였는데 대해 노조원들이 크게 반발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

다. 또 현대차와의 차별이 예상되는 임금합의안, 내용이 빠진 주간연속 2교대제 등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이 대거 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협상 부분에서 ▲기본급 8만5천 원 인상 ▲생계비 부족분 300% 및 격려금 300만원 지급 ▲상여금 700%에서 750%로 인상 등이며 단체협상

은 ▲정년 1년 연장(58→59세) ▲채용시 장기근속자 자녀 가산점 확대 ▲업무상 재해시 입찰판트, 성형비 회사 지급 ▲교섭위원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 등이다.

이날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파업일정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의 파업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공장의 경우 지난 7월2일 이후 8차례 파업시간 88시간(잔업 포함)에 생산손실대수 6천500여대, 손실액 870여억원이 발생했다.

기아차 전체로는 생산손실대수 1만6천여대, 2천2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업 절반 가량

작년 이맘때보다

자금사정 어렵다

商議, 500개 곳 조사

우리 기업들의 절반 가량이 현재 자금사정이 작년 이맘때에 비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전국 50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기업 자금사정과 정책과제' 조사를 벌인 결과 43%가 작년 이맘때보다 어렵다고 응답했고 작년보다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7.5%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상으로 현재 자금사정이 개선될 시기를 묻는 질문에 기업들의 53.1%가 '내년 상반기'(26.8%), '내년 하반기'(26.3%)를 꼽았고 기업들의 32.4%는 '기약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금융 불안 ‘불씨’ 사라진 게 아니다”

韓銀총재, 주식·환율 변동성 여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9월 위기설'로 촉발된 한국 금융시장 불안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동성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주식, 환율이 워낙 외부에 많이 노출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되기 전까지는 한국 금융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가끔 있을 수 있다”며 “이제 다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돼야 이러한 ‘불씨’(9월 위기설)도 없어질 텐데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미국의 주택시장과 연결돼 있어 가까운 장래에 평온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유가격이 크게 내

려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난 한두 달 동안 겪었던 심리적인 변화까지는 아니겠지만 금융시장에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당분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결국 허구로 판명된 '9월 위기설'이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었던 것은 국제 금융시장 사정과 국내 경기 둔화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총재는 “최근 몇 년간 국제 금융이 팽창할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한때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주식 보유 비율이 40%까지 간 적도 있었다”며 “즉 국제금융 팽창 시기에 한국에 자본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들어왔고 국제금융이 수축되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고 있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5년간 1조원 투입

녹색산업·정보통신융합·문화콘텐츠·첨단의료·지식기반서비스 등 핵심 미래산업의 47개 인력양성사업에 5년간 1조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층 고용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형 산업의 맞춤형 우수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6개 분야 47개 인력양성사업이 선정됐다.

이들 47개 사업에는 내년 1천3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녹색산업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연구개발, 기후변화

대응·환경서비스, 환경 유망신사업 등을 중심으로 5년간 총 1만3천명의 청년리더가 양성되며, 첨단산업에서는 바이오융합·산업발, 로봇연구개발, 항공기안전인증·유항 등에서 1만2천명의 인력이 육성된다.

정보통신·융합 분야에서는 융복합·지식정보보안, 산업리더, 연구개발 등을 포함해 2만4천명이,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문화콘텐츠융합, 기·영화·방송 등에서 1만2천명이, 첨단의료 분야에서는 신약·첨단의료기기, 국제마케팅, 첨단한의학 등에서 1만3천명의 우수인력이 양성된다.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디자인, 유·시티(U-city) 및 공간정보, 기술사업화·플랜트 등에서 2만6천명의 인력이 전문가로 키워진다. /연합뉴스

대한조선 두번째 선박 인도



대한조선이 건조한 두번째 선박 '킹 로버트'호가 11일 노르웨이 선주에 인도돼 해남 조선소를 떠나고 있다. (대한조선 제공)

해남조선소 건조 17만500t급 '킹 로버트(KING ROBERT)'호

11일 노르웨이 선주에 성공적 인도... 세계적 조선소 성장 거듭

대한조선이 11일 해남군에 위치한 해남조선소에서 두번째 건조선박인 'HN-1002호선'을 인도했다.

이날 인도한 선박은 노르웨이 골든오션그룹이 발주한 8척의 벌크선 중 두번째 선박으로, 길이 289m·45m의 17만500t급 규모다. 이에 앞서 대한조선은 지난 6월27일 첫번째 선박인 '미스틱(MYSTIC)'호를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다.

11일 인도된 선박은 선주사에 의해 '킹로버트(KING ROBERT)'호로 명명됐으며, 대한조선 전 임직원과 노르웨이 골든오션그룹 관계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날

오후 5시에 조선소를 떠났다. 지난 3월초 강제절단을 시작으로 착공 7개월여 만에 건조된 '킹로버트'호는 첫번째 선박건조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이 바탕이 돼 한층 고품질 선박으로 탄생했다.

특히 이 선박은 국제선급연합회(IACS)에서 규정할 공통구조규칙(CSR) 기준을 충족시킨 친환경 선박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조선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후관가격 폭등 등 잇단 악재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선박을 인도하게 돼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현재 1도크에서 각각 공정을

80%, 30%를 보이며 한창 건조되고 있는 HN-1017, HN-1003호선은 이날 인도한 선박과 같은 선종이다. 세번째 건조선박인 HN-1017호선은 오는 27일 진수를 거쳐 11월 중에 선주인 창명해운에 인도될 예정이다.

김호중 대한조선 사장은 “2호선 인도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임직원들이 한 뜻으로 힘을 합쳐 얻어낸 귀중한 결실”이라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만 극복하면 대한조선은 세계적인 조선소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금호, 금호생명 매각 추진

그룹측 “자금난 해소 위해 상장 매각 등 다각 검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금호생명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1일 “금호생명을 상장한 뒤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과 상장 전에 지분의 일부 또는 전량을 매각하는 방안 등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호생명명은 그동안 출른 기업공개(IPO)를 준비해왔으나 방향을 틀러 아예 통째로 팔고 경영권까지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금호 측은 “상장 전 매각한다면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전체를 넘기게 되고 상장을 한다면 경영권은 유지한 채 일부 지분만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유동성 위기

설이 불거지자 7월 말 금호생명의 지분 일부 매각 등을 통해 총 4조5천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한다는 유동성 확보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생명 지분 매각은 유동성 확보의 측면도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그 계열사는 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도 감안한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즉 지주회사인 금호산업과 그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생명 지분을 각각 16.16%, 23.14%씩 보유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이들 지분은 올해 말까지 처분해야 한다.

증권가에선 이를 전량 매각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매각가격이 1조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농협-무안군, 지역개발사업 금융지원 협약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11일 무안군에서 서삼석 무안군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사진)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협은 무안군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필요자금을 지원하고 무안군이 투자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등 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재원조달에 관한 금융자문 및 주선, 산업단지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지역개발사업 공동홍보 추진 등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대기업-中企 대규모 채용박람회’ LG전자 채용 늘린다

전경련 회장단, 일자리 확대 위해 24일 개최키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11일 오후 시내 신라호텔에서 9월 정례 회장단회의를 갖고 일자리를 확대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고용창출에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가계의 실질구매력 약화로 인한 내수 위축이 큰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또 “장차산업 중심의 대기업만으로는 전체 일자리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이 필요하다”며 채용박람회 개최 계획을 밝혔다. 24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채용 박람회에는 대기업 1개사와 50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 총 1천50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예상된다. 전경련은 채용박람회가 성공하면 연말에 규모를 확대해 개최할 방침이다. 회장단은 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9월 금융위기설은 한낱 기우임이 확실했다”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영철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기로 했다. /연합뉴스

LG전자 채용 늘린다

당초 계획보다 2배인 1천명

LG전자가 하반기 신규인력 채용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려 1천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LG전자는 당초 하반기에 50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규모를 대폭 늘려 1천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LG전자는 상반기에 500명을 이미 채용했기 때문에 올해 총 1천50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게 되며, 이는 지난해 신규채용 실적 1천명과 비교할 때 50%가량 증가한 것이다.

LG전자는 현재 하반기 신입사원 정식채용을 진행중이며, 오는 21일까지 LG전자 홈페이지(www.lge.co.kr) 인재채용 코너를 통해서 지원서를 접수한다. /연합뉴스

금통위 기준금리 연 5.25%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5.25%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기준금리는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0.25% 포인트 인상된 5.25%로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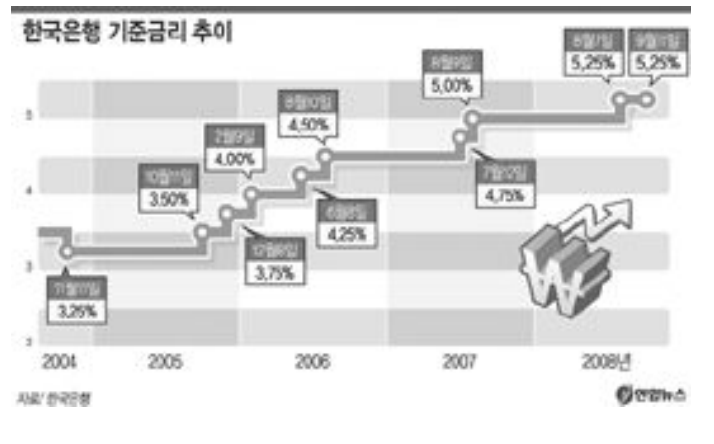
금통위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은 세계경기 둔화에 따라 한국경제도 하강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 국제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생산자물가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지난 8월에 12.3%로 조사되는 등 물가불안이 여전한

다는 점도 기준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이다.

금통위는 회의직후 ‘통화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최근 국내경기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저조로 인해 둔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경기 부진 등으로 향후 경기흐름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어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소폭 낮아졌으나 상당기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중企 ‘거래하고 싶은 은행’

기업은행 1위로 꼽아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주거·렌은행으로 가장 선호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으로 밝혀졌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2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8개 주거·금융기관의 지원 서비스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거래하고 싶은 은행’으로 가장 많은 전체

의 31.4%가 기업은행을 꼽았고 2위는 광주은행으로 18.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본부는 “기업은행의 경우 중기들이 풀려있는 광주·하남산단에 점포를 두고 있고 광주은행도 향토은행으로 지역 곳곳에 많은 점포를 뒤 겹근성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고 대출조건 등도 양호해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16개 항목을 중심으로 주거·렌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100점 만점에 60.4점에 그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친질도(73.3점), 접대태도(72.3점) 등의 점수는 70점을 넘긴 반면 대출금리(53.7점), 담보요구(56.8점), 대출금액(58.7점), 신규대출(60.1점), 만기연장(66.8점) 대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나머지 14개 항목이 모두 60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2012년까지 가스 충전원

노인 1,500명 채용

2012년까지 노인 1천500명이 가스 충전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300명의 노인을 전국 가스충전소에 충전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한국LP가스공업협회와 체결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1천500명의 노인이 가스충전원으로 고용되면 전국 충전원 인력의 3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추계됐다. /연합뉴스